

논술고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수험번호 () 성명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becoming an increasingly growing topic of conversation both in the workplace and outside of it. Simply put, this is the concept of basically connecting any device with an on and off switch to the Internet. This includes everything from cell phones, coffee makers, washing machines, headphones, lamps, wearable devices and almost anything else you can think of. The analyst firm Gartner says that by 2020 there will be over 26 billion connected devices. Some even estimate this number to be much higher, over 100 billion. The IoT is a giant network of connected 'things' which also includes people. The relationship will be between people-people, people-things, and things-things.

The new rule for the future is going to be, "Anything that can be connected, will be connected." But why on earth would you want so many connected devices talking to each other? There are many examples for what this might look like or what the potential value might be. Say for example you are on your way to a meeting; your car could have access to your calendar and already know the best route to take. If the traffic is heavy your car might send a text to the other party notifying them that you will be late. On a broader scale, the IoT can be applied to things like transportation networks: 'smart cities' which can help us reduce waste and improve efficiency for things such as energy use; this helping us understand and improve how we work and live. The reality is that the IoT allows for virtually endless opportunities and connections to take place, many of which we can't even think of or fully understand the impact of today.

*Internet of things(IoT): 사물인터넷

- J. Morgan, "A Simple Explana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Forbes*

<제시문 2>

미셸 푸코는 근대 이전의 군주 권력이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던 시선으로 특징지어졌다면, 근대의 규율 권력은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시선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보았다. 푸코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고 이를 추동(推動)한 것이 다름 아닌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1791년에 제안한 원형 감옥 페네티콘이라고 말했다. 벤담은 그리스어로 '다 본다(Pan: all + Opticon: seeing 또는 vision)'라는 의미를 가진 이것을 자신이 설계한 감옥을 지칭하는 용어로 새롭게 사용했다.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상태로 항상 보여지기만 하고, 간수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항상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었다. 이 시선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페네티콘의 핵심구조였다. 벤담 자신이 강조했듯이 페네티콘은 '죄수들이 언제나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감시의 환영(幻影)'을 창조한 극장이었다.

벤담은 그의 책 『페네티콘』의 서문에서 페네티콘을 통하여 "도덕이 개혁되고, 건강이 보존되며, 산업이 활성화되고, 훈령(訓令)이 확산되며, 대중의 부담이 감소되고, 경제가 반석에 오른다"라고 함으로써 그 응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페네티콘은 죄수를 교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환자를 치료하거나 학생을 교육하는 곳, 노동자를 감독하는 곳, 정신병자를 가두는 곳, 그리고 거지와 게으름뱅이의 재활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 점에 주목하여 페네티콘의 의미 범주를 확장 해석하였다. 페네티콘을 통한 규율이라는 것이 범죄자를 감금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페네티콘형 감시와 통제가 '가장 미세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요소들에게까지 권력의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재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00출판사,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재구성

<제시문 3>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후략]
---	--

- 김광규, 「안개의 나라」

[문제 1] <제시문 1>, <제시문 2>의 요지와 <제시문 3>의 주제의식을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1>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갑자기 큰 강물이 앞에 나오는데, 천 리 밖에 폭우가 내려 붉은 파도가 산처럼 일어서며 무척 위태로웠는데 강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요동 평야가 평평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물줄기가 성내 울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황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황하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낮에는 능히 물을 볼 수가 있다. 눈이 온통 위험한 데로만 쏠려서 바야흐로 부들부들 떨려 도리어 눈이 있음을 근심해야 할 판인데 어찌 물소리가 들리겠는가? 이제 내가 한밤중에 강물을 건너매, 눈에 위태로움이 보이지 않자 위태로움이 온통 듣는 데로만 쏠려서 귀가 바야흐로 덜덜 떨려 그 걱정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이제야 도를 알았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사람은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고, 눈과 귀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더욱 병통이 되는 것임을.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혀 뒤 수레에 실리고 보니, 마침내 고삐를 놓고 강물 위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올려 발을 모으자,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강물이었다. 강물로 땅을 삼고 강물로 옷을 삼고 강물로 몸을 삼고 강물로 마음을 삼아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하고 나자 내 귓속에 마침내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아홉 번을 건넌트되 아무 걱정 없는 것이, 마치 앉은 자리 위에서 앉고 눕고 기거하는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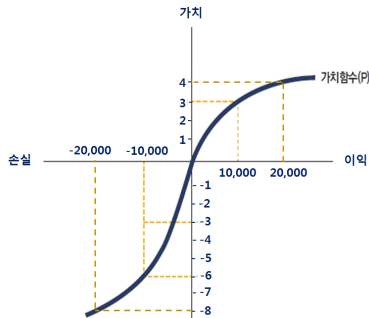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에서 발췌

<제시문 5>

(가) 왼손은 얼음물을 담은 컵에, 오른손은 뜨거운 물을 담은 컵에 담근다. 1분 정도 후에 미지근한 물을 담은 컵에 두 손을 담가 보자. 그러면 똑같은 물이지만 왼손에는 그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오른손에는 차갑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자극의 강도에 대한 지각은 그 자극의 절대적인 강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강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각 경험은 그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나) 카네만과 트버스키는 가치 함수를 통해 기대이론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이론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유리해지는 변화를 이득으로, 불리해지는 변화를 손실로 바라본다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득이나 손실의 기댓값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이나 상실감과 같은 주관적인 가치의 크기에 따라 선택을 한다. 그러므로 기대이론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할 때 그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B형)』 (2014년)



<자료>

(가) 누군가가 A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첫째, 무조건 10,000원을 받는다. 둘째, 50% 확률로 0원을 받거나 20,000원을 받는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기댓값의 관점에서 보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다. 어떤 선택의 기댓값이란 선택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얻게 될 이득을 곱한 값이다. 앞의 예에서, 첫 번째 선택지는 무조건적 선택이므로 확률은 1이고 그 이득은 10,000원이다. 두 번째 선택의 기댓값은 0.5의 확률에 각각 이득 0원을 곱한 값과 20,000원을 곱한 값의 합인 10,000원이다.

(나) B가 교통 신호를 위반했을 때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첫째, 경찰에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고 10,000원의 벌금을 낸다. 둘째,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20,000원의 벌금을 내거나, 적발되지 않아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물론 적발될 확률과 적발되지 않을 확률은 각각 50%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기댓값은 벌금 10,000원으로 같다.

-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형)』 (2014년)

[문제 3] <제시문 4>와 <제시문 5-가>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5>의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가치 함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A와 B가 가치 함수에 근거하여 각각 어떤 선택을 할지 추론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